

그날 강가에서 살리는 비밀을 발견한 파수꾼 에스겔 -복음으로 여는 에스겔- 에스겔 33:6, 사도행전 20:24-27

정윤돈 목사님

* **겔33:6**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자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 **행20:24-27**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나 모든 사람의 파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준근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께 나뉘어진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모든 헌신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영육 간의 우리의 절대불가능한 부분들까지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응답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나의 현황과 교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나의 업과 학업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갈등하며 고통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예배와 성령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절대계획과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 중에서도 정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레미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도전하여 응답받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론: 파수꾼의 사명과 영적 레이더

1. 파수꾼 에스겔과 사도 바울의 생명 건 사명 성경에서는 ‘파수꾼’이나 ‘방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그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이다. 하나님은 에스겔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 할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충실하게 감당하였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였다. 파수꾼은 성루 위에서 적군이 오는지 지키는 자이다. 고대의 파수꾼은 단순히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적의 화살이나 기습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적군이 공격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다. 만약 파수꾼이 졸거나 적의 침입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않는다면 성 안의 모든 백성은 영문도 모른 채 전멸하게 된다. 우리는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 21세기 현대전에서의 파수꾼들은 바로 레미이다. 최근 전쟁의 사례를 보면, 강력한 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쪽이 상대의 공격을 미리 감지하여 무력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으면 적의 미사일이나 드론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영적인 힘과 말씀의 레이더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 가정과 경제가 쑥대밭이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파수꾼이 되어 영적 레이더를 돌려야 한다.

2. 그날 강가의 기도와 에스겔의 부르심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25세의 나이로 포로로 끌려갔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 1차 포로 때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서대원임을 가지며 기도했지만, 에스겔의 환경은 “그날 강가에 있었다.” “그날”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의 대규모 운하 공사현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곳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 가문출신이었으나, 25세에 끌려와 30세가 되기까지 5년 동안 강제노동을 하면서 기도하였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노예처럼 고통받아야 하나까?”라는 한숨을 시작하며 기도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라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에스겔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호기처럼 시작됐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과거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옛날에 청년 회장이었고 전도도 많이 했다”는 과거의 경력은 현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지금 내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서 흑암을 쫓는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오늘 언약을 붙잡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이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이 많지만 승리하는 사람은 소망과 미래의 환상을 바라본다. 미래 언약, 세계복음화, 237나라, 내가 할 것을 바라본다. 에스겔은 패자가 된 현실 너머의 회복을 꿈꾸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

3. 한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의 inne 파수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제 중직자 핵심에서 한 램프가 영여 통역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 램프는 나의 제자인 조영찬 목사의 딸인 하원 양이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며 나는 조영찬 목사의 과거를 떠올렸다. 조영찬 목사는 어릴 적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던(?) 제자였다. 한 번은 동네 아이들이 벌에 쏘여 부어오른 그의 얼굴을 애원하고 오줌을 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아이들이 어디서 “오줌을 바르면 벌 독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치료해준다는 발인 일이었다. 또한 폭포 바닷가에서 수영을 가르칠 때, 내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물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깨져 피가 난자했던 일도 있었다. 그렇게 사고만 치던 제자가 신학교에 다니며 3년 동안 나와 가족사에서 먹고 자며 혼란을 받았다. 오갈 데 없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며 기도로 도왔다. 한 사람을 살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현장과 그 자리, 만나는 사람, 그리고 가정과 가문, 직장을 먼저 살려야 한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살리지 못한다면 세계복음화는 그저 말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37나라와 5,000 종족을 살리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곁에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진정한 파수꾼의 사명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실천적인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4.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영적 방어체계(겔1:3)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이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힘이시다’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조차 살릴 수 없다.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불면증으로 고통 받으며 뇌와 건강이 망가져 가는 상태에서는 결코 남을 도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과 뇌, 그리고 건강을 살리는 은혜와 힘을 먼저 공급받아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사일요격시스템인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되어 실천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줬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란에서 쏜 드론과 미사일을 우리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작동법을 교육하며 함께 막아낸 것이다. 21세기 파수꾼대인 AESA레이더가 적의 공격을 미리 감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말씀한다. 사단 마귀는 미사일을 쏘듯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쏜다. 부정적인 생각,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중독, 경제적 위기, 부부갈등과 자녀문제, 사업문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공격한다. 이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린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동원하신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파견된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천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님께서는 중공전선 잠수 사단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막아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부모나 자녀, 형제나 배우자가 아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지키는 힘은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흑암과 저주를 물리치는 ‘말씀의 파수꾼’이 될 때 나타난다. 단순히 성경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단 마귀의 멸망작전을 미리 간파할 수 있는 ‘영적 레이더’를 가진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영적 레이더를 가동할 때 비로소 흑암의 공격을 예방하고, 막아내며, 소중한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비밀을 소유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레이더를 가진 파수꾼이 되어 현장을 살리기 위한 간절히 축원한다.

5. 가정의 파수꾼과 기도의 유산 가정에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내와 어머니의 기도가 결정적이다. 남편들은 세상 일과 스트레스에 치여 영적으로 무뎌지기 쉽다. 예배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끈질긴 기도도 남편이 결국 장로가 되고,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나의 경우도 서울에서 여덟 번이나 이사를 다니는 환경 속에서도 가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며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 노력했다. 나이나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이 처한 곳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길 축원드린다. 나의 어머니 또한 평생 아버지자 장로가 되고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철저히 낮추어 섬에서 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게 하였고, 결국 가문을 살리는 복의 근원인 장로로 세우셨다. 고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축원한다.

6. 이스라엘의 원악함과 복음의 은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 번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 속에서도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만 골라 했던 원악한 민족이었다.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이란(과거 페르시아)의 갈등 또한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구약성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진정한 복음의 비밀과 사람을 살리는 선지 국가의 사명을 놓치고 있다. 그저 원수와 싸워 이기는 법만 알 뿐, 영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비밀은 알지 못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정과 현장에서 누군가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

7.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의 사명 이 메시지를 깨닫는 자들이 바로 파수꾼이다. 하나님은 자식이나 학벌과 관계없이 연약한 우리를 불러 가정과 가문, 친구와 나라, 그리고 세계를 살릴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포로생활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부러워하며 따라가는 자는 결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오직 복음의 자부심을 가진 자만이 무너진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8. 세계복음화를 위한 파수꾼의 기도와 자부심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237나라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경제적인 축복과 학업의 축복, 그리고 각양각색의 전문적인 재능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세계를 살리는 비밀이 바로 그 응답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파수꾼은 기도로 늘 깨어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포로생활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룩한 자존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만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부러워하거나 휩쓸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는 상태로는 결코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9.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파수꾼(고전16:18) 또한 파수꾼은 전도자와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이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라고 고백했듯이, 전도자의 결회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중직자와 램넛가 있어야 한다. 나의 제자인 조영찬 목사의 경우, 초등학교시절부터 결에서 양육하며 많은 정성을 쏟았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는 막 하루만 고교하고 1년 내내 기도를 하는 등 큰 방황의 시기를 겪었다. 당시 목회자로서 나는 매우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컸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였던 반장이 있었다. 그 반장 친구는 조영찬 목사가 학교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석부에 출석으로 체크해 주며 그를 도와주었다. 그 덕분에 결석이 없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이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청소년시절의 갈등과 방황은 누구나 거쳐 갈 수 있는 성장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해 보이는 과정조차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파수꾼은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니,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파수꾼이 되기를 축원한다.

1.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파수꾼의 경고

1) 파수꾼이 필요한 이유: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불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무지와 잘못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이 망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면서 서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 이러한 비극의 뿌리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앙과 창세기 3장의 불순종에 있다.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단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지만 인간은 여전히 불순종하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 한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파수꾼이자 제자, 그리고 전도자로 거듭나기 시작한다.

2) 강단메시지의 중요성과 순종의 태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담임목사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이다. 다른 사람의 조언은 잘 들으면서도 정작 영적 지도자의 메시지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학교에서 과외선생님의 말은 잘 들으면서 정작 내신성적을 관리해 주는 담임선생님의 말을 무시하는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유혹하고 미혹한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 말씀을 놓치는 것이 곧 불신앙이며 불순종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혼돈과 흑암, 공허만이 찾아올 뿐이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모르나, 예배와 말씀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는 언제나 위기감이 찾아온다.

3) 파수꾼의 엄중한 책임: 경고의 나팔을 불라(겔33:6) 파수꾼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영적 위기를 보고 경고해야 할 엄중한 사명이 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여러 마리 경고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큰 사단이 터졌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에스겔에서 파수꾼이 악인의 의인인 잘못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아 그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고 하셨다. 특히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던 의인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파수꾼은 그를 향해 마땅히 경고의 나팔을 불아야 한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불신앙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반대로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자라도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 은혜를 멸시하는 자는 집종과 다를 바 없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지도자의 마음을 담담하게 하는 '집종' 같은 인간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4)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의 회복 우리는 수시로 잘못하고 부족한 순간을 맞이한다. 불신앙과 염려, 미움의 감정이 한 달, 혹은 1년 넘게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순간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드는 순간 10년 묵은 원망과 불신앙도 단 1초 만에 사라질 수 있다. 성도는 매일, 매순간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파수꾼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 살리는 비밀과 하나님의 회복

1) 영혼을 살리는 파수꾼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파수꾼 에스겔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파수꾼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임을 믿어야 한다. 파수꾼은 한 사람을 살리고 두 사람을 살리며, 나아가 가문과 지역, 직장과 나라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복음뿐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에 왜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는지 묻곤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에만 집중하도록 때로는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을 허락하신다. 이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시는 과정이다.

2) 일본선교와 현재의 미래(나고야 램넛대회 예화) 이번 달 말 일본 나고야에서 램넛대회가 열린다. 그곳의 이종우 선교사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일본선교를 위해 온 가족의 국적을 일본으로 바꿀 만큼 헌신적이다. 대개의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만 이 선교사님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며 15군데에 지교회들을 세우셨다. 나는 내년에 우리 성도들과 팀을 짜서 램넛대회 일주일 전부터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일본에는 약 500군데의 스킵장이 있는데, 그곳에 복음의 땅대를 세우고 싶다. 우리나라의 스킵장들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곳이 많지만 일본은 동쪽지역에 눈이 많이 내

려 마을마다 리프트 주인이 다들 정도로 스킵문화가 발달해 있다. 그 현장마다 복음의 땅대를 세워야 한다. 스킵장에 가보면 동남아시아(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매우 많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시간동안 그들에게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곧 다문화선교이자 세계복음화이다. "한국이 잘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당시들의 나라도 우상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전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에서 흑암이 꺾이는 것이 파수꾼의 비밀이다. 각자에게 주신 현장을 땅대로 삼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3) 마른 뼈를 살아내고 살리는 말씀의 능력(겔37:1-10) 두 번째 비밀은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 주셨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향해 명령했을 때,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살이 오르면 생기가 들어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다. 우리 주변에는 멸절히 걸어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시체나 좀비와 같은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기, 곧 복음의 말씀이다. 내가 먼저 말씀성취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언이 될 수 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할 때, 한 사람에서 시작된 생명이 가문과 지역을 넘어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237나라, 5,000종족을 살리는 시작이다.

4) 환상과 계시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비전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과 계시 속에서 새로운 성전을 보는 장면이 나온다. 성전 전체에서 계시와 환상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와 복음적 헌(恨)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꿈과 계시, 그리고 말씀의 환상을 보여주신다. 현실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매일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에게는 비전 대신 악몽이나 정신적 고통만이 찾아올 뿐이다. 이는 결국 근심과 정신적인 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환상이 있길 기도한다. 마음속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동기가 가득하면 마귀가 틈타게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회자의 목적이 단순히 '교회 부흥'에만 있다면 진정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내 교회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태도로는 참된 전도제자를 키울 수 없으며, 그런 동기는 오히려 주 전도를 멈추게 만든다. 성도의 삶은 직분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평생 전도자의 삶이어야 한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를 전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 왔다. 평신도시절부터 꾸준히 불신자를 양육하여 장로와 집사, 목회자로 세우는 일을 지속해 왔다.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불신자 전도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운동현장에서 전도땅대를 세우고 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드물어 새로운 사람이 계속 유입되는 운동현장은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언제든 현장에 나가면 전도할 대상자가 예비되어 있다.

5) 70현장 정복과 전문성 준비 성도는 자신만의 전도현장인 70현장을 찾아야 한다. 각자의 전문성과 달란트는 모두 다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각지에 지부를 만들고 그곳을 치유센터와 RUTC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 집중해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는 등 구체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사단은 우리의 중생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정욕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겠다는 언약이 우선되어야 한다. 내 가족이나 내 교회만을 위한 국수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전 세계와 교단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참된 파수꾼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현장에서 말씀성취를 체험하는 자이다.

6)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명의 역사(겔47:1-12) 강단에서 나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를 누리는 것이 파수꾼의 비밀이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나온다. 이 물은 처음에는 발복에 충분하다가 무릎, 허리를 거쳐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룬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을 치유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과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확산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이 생명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첫째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둘째는 고기가 심히 많아지며, 셋째는 죽었던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넷째는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다섯째는 고기가 종류대로 큰 바다의 물고기같이 심히 많아지는 축복이 임한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가난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오해를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말씀과 복음의 흐름 속에 제대로 거역한다면 치유와 회복은 물론 경제적 풍요와 학업의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더 큰 언약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오히려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은 우리 중에 드물다. 대개의 어려움은 주님만 바라보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의이다. 내가 지금 어려운 '그날' 강가와 같은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후대에 게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신다. 의인의 후손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복음의 시조, 축복의 시조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된다. 이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은 성소, 즉 강단메시지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적시듯,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현장으로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결론: 살리는 파수꾼의 길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파수꾼이 되어 어떠한 현장에서도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려내야 한다. 성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지역과 가정, 그리고 전 세계로 나아가 모든 현장을 풍요롭게 만드는 성도와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하여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자격과 준비를 온전히 갖추 수 있도록 주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